

## Shroud Exhibition in Seoul, South Korea

All Photographs ©2016 Michal Rzepka





## 1. 토리노 성 수의의 기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때 예수님의 시신을 썼던 수의가 있었다. 이 수의에 대해 요한 복음(20,3-8)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종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썼던 아마포로 된 수의가 있었는데, 이 수의를 복음서는 ‘신돈’(σινδών, Sindon = ‘아마포’란 뜻)이라 불렀다.  
**이탈리아어로는 Sindone** 라고 한다. **한국어로는 성 수의, 토리노의 수의, 예수님의 성의**라고 한다. ‘토리노(투린)의 수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 천이 현재 이탈리아 토리노의 세례자 요한 대성당의 로열채플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길이 4.41미터, 폭 1.13미터의 아마포 천 위에는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형에 처해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수난과 일치하는 인물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새겨져 있다.

1

## 성 수의가 이미 14세기 이전에 있었다는 증거들

01 1193-1195년에 그려진 프레이 사본(Prey codex) - 미술사적 설명

1968년에 헝가리의 부타페스트 도서관에서 프레이 사본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서적으로 1193-1195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려진 헝가리의 왕에게 사립간 왕녀가 가지고 간 것이다. 그 27쪽에는 두 개의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허리에 천이 걸쳐져 있지 않던 여가에서는 앞물이다. 이전의 그림에는 그런 예가 없다. 이 그림에는 성의에 나타나고 있는 몇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 가장 뚜렷한 것은 성의에 나타난 인물의 팔이 엇갈려 있다는 것과 양자 손가락이 손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 기하학적인 무늬가 성의의 앞과 같은 상능의(해방본) 무늬(문양)이라는 것이다.

헝가리의 부타페스트 도서관에서 발견된 프레이 사본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천 위에 있는 L자 모양으로 난 구멍이다. 이 그림과 성의에 이런 모양의 구멍이 4번 있다. 이것은 그림을 그린 화가가 분명히 성 수의를 보고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다.

16